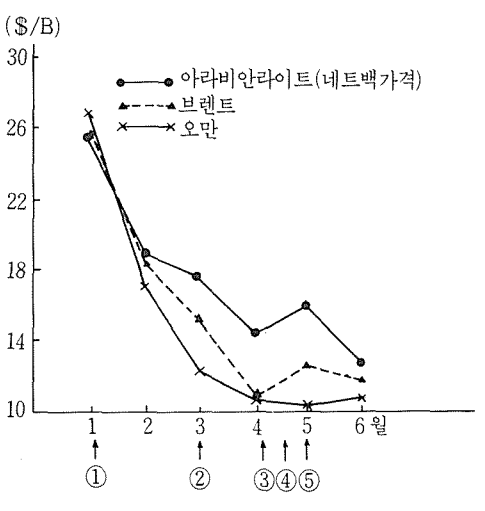
국제원유가격하락의 內幕

1. 原油 공급과잉의 배경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1986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원유 스파트 가격은 1월에 배럴당 26달러에서 2월에는 20달러수준으로, 3월에는 15달러수준으로 하락했고, 최근에는 10달러를 밑도는 유종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림-1〉 최근의 原油가격추이



① 사우디의 극동수출물량 네트백계약체결(1/7)
② 제77차 OPEC총회(3/16-3/24), (4/16-4/21)
③ 노르웨이, 파업에 의한 原油생산중지(4/6-4/24)
④ 美國, 리비아폭격(4/14)
⑤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4/26)

이와같이 원유가격이 폭락한 것은 무엇보다도 공급과잉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유한한 자원인 원유가 왜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 주요한 배경을 알아본다. 그것은 79년의 제2차 석유위기를 계기로 원유가격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여 다음과 같은 현상을 낳았기 때문이다.

① 에너지절약 및 石油대체 에너지로의 연료전환등에 의해 石油수요가 감소하였다.

② 가격상승에 따라 개발 코스트가 높은 지역에서도 채

〈表-1〉 OPEC의 原油생산할당 및 생산량(단위 : 만B/D)

	생산능력	1984. 11 (A) 생산할당	1986. 4 (B) 생산량(추정)	A-B 차이
사우디아라비아	880	435	440	+ 5
이 란	300	230	180	△ 50
이 라 크	190	120	170	+ 50
쿠 웨 이 트	230	90	160	+ 70
U A E	213	95	140	+ 45
카 타 르	50	28	30	+ 2
베 네 수 엘 라	250	156	160	+ 4
나 이 지 리 아	180	130	160	+ 30
리 비 아	150	99	90	△ 9
인 도 네 시 아	170	119	140	+ 21
알 제 리	80	66	70	+ 4
가 봉	20	14	14	—
에 콰 도 르	30	18	26	+ 8
계	2,743	1,600	1,780	+ 180

산성이 맞게 되어 非OPEC제국에서의 石油개발과 생산이 촉진되었다.

③ 위의 ① ② 의 결과 OPEC(石油輸出國機構)는 非OPEC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겨 석유판매수입이 감소하는 한편, 공급여력이 증대되고, 항상 증산하려는 의욕이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현재의 OPEC생산량은 생산능력의 6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하루 1천만배럴 정도나 되는 공급여력을 갖고 있다.

그럼, 작년말부터 原油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급과잉에 제동을 걸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① 85년 10월, 이라크의 새로운 파이프라인(능력 : 50만B/D)이 완성되어, 「얀부」에서 原油출하를 개시하였다.

② 사우디 아라비아가 수급조정역을 포기하고 나섰기 때문에 비수요기에 감산하려는 나라가 없었다. 여름철에는 보통 하루 200만배럴 이상의 공급과잉이 생긴다.

③ OPEC는 더이상 감산할 수 없으며, 76차 총회(85년 12월)에서 정당한 시장점유율 확보를 선언하고 나선 것을 계기로 쿠웨이트, UAE등이 지금까지의 생산 할당량을 무시하고 대폭 증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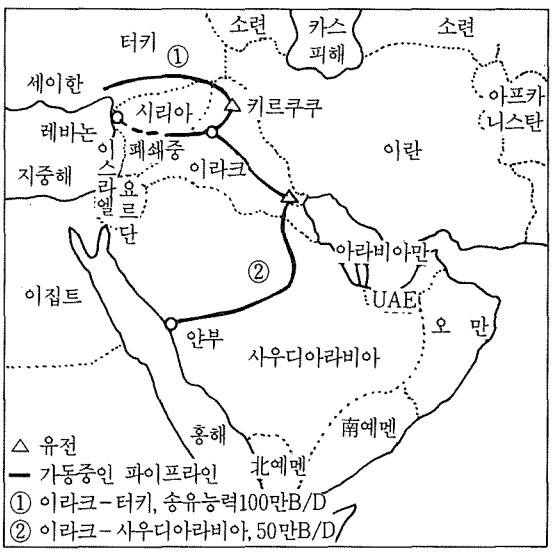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原油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감산하려는 나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급과잉 현상이 고조된 것이다.

2. OPEC 내부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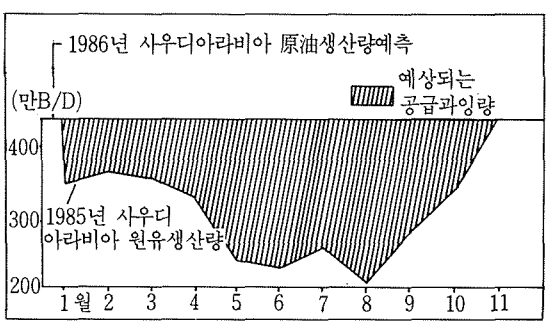
OPEC가 76차 총회에서 전원일치로 결정한 시장 점유율 확대 선언의 의도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이라크의 한 정부당국자의 당시 발언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원유 가격은 1배럴당 20달러 정도까지 하락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수준이 되면 영국등의 非OPEC산유국이 두손을 들고, 감산협력을 요청해 올 것이 틀림없다. 그 시점에서 전산유국의 협조감산에 의한 원유 가격회복과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즉, 시장 점유율 확대 선언은 어디까지나 非OPEC 산유국의 감산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럴당 20달러를 밑돌아도 英國등 非OPEC산유국의 감산협력을 받아내지 못하고 가격이 예상외로 떨어져 당초 OPEC의 예상은 크게 빗나가고 말았다.

〈그림-2〉 이라크의 原油출하파이프라인



〈그림-3〉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급조정역을 포기한 영향



이 때문에 OPEC 내에서는 시장점유율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OPEC만이라도 감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가격이 생각보다 더 떨어져도 계속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3. 앞으로의 전망

(1) 短期전망

대부분의 산유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極東지역수출 물량에 대해 네트백 판매를 개시한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의

경직된 공식가격으로의 原油판매를 중단하고, 장기계약에도 스파트 가격을 반영하거나 네트백 가격을 채용하는등, 시장원리에 대응하여 판매하는 가격결정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국은 원유 공급과잉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은 저가격의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반대로 수급이 핍박받을 때에는 그 만큼 가격이 등귀한다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들면, 석유회사들이 유가하락 전망 때문에 여름철에 재고를 최대한 억제한채 겨울철 수요기를 맞이하면 가격이 일거에 폭등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 美國등의 석유재고 수준과 수급과 관련한 특수요인에 原油가격이 좌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2) 中長期 전망

지금까지의 예측으로는 원유가격도 인플레 정도로 상승하고 非OPEC 제국의 원유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OPEC에 대한 의존도는 앞으로 한동안은 그렇게 높아질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다른 OPEC 제국에 비해 여유가 있는 나라, 즉 세계 제1의 석유 매장국 사우디아라비아등이 北海등의 코스트가 높은 원유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그동안 너무 오른 원유가격을 억제하여 당분간 저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다.

두차례의 석유위기는 OPEC에 대한 의존도가 OPEC 생산능력의 85%이상에 달했을 때에 발생하였다. 앞으로 OPEC에 대한 의존도를 다시 점점 높여간다면 그 의존

〈表-2〉 주요산유국의 판매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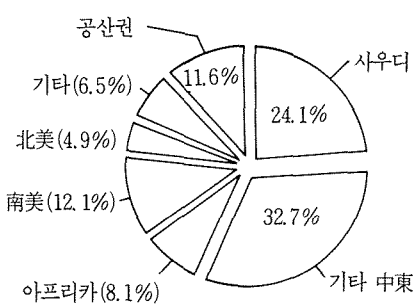
국 명	네 트 백	스 파 트	바 터
사 우 디	◎		○
이 란	◎	○	○
이 라 크	◎	○	○
쿠 웨 이 트	○	◎	
아 부 다 비		◎	
카 타 르		◎	
나 이 지 리 아	◎		○
리 비 아	◎		○
베 네 수 엘 라		◎	
알 제 리	○		○
오 만		◎	
멕 시 코		◎	

◎주요 거래 형태

〈表-3〉 石油와 타에너지의 경합가격

		경합가격($/B)
石炭	(석유화력발전 설비를 갖춘 기존 석탄 화력)	
	美國	약 13$(10-16$)
	유럽	약 15$(12-18$)
	日本	약 14$(13-16$)
	(신규석탄발전소와의 石油 경합가격) -1990년 운전개시	
	美國	약 18$(15-21$)
	유럽	약 20$(17-22$)
	日本	약 19$(18-21$)
원자력	(日本에서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석유경합가격)	
	1985년 운전개시	약 14$(13-16$)
	2000년 〃	약 12$(11-13$)

〈그림-4〉 세계의 석유매장량



*총매장량 7천억배럴(1986년 1월 현재)

주요산유국의 확인매장량
(단위 : 억배럴, %)

국 명	매장량	점유율
사 우 디	1,680	24.1
이 란	479	6.8
이 라 크	441	6.3
쿠 웨 이 트	898	12.8
(OPEC계)	(4,747)	(67.8)
英 國	130	1.9
멕 시 코	493	7.0
美 國	280	4.0

도가 85%에 달했을 때 3차 석유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美國 에너지省은 「2010년 까지의 석유수급전망」이라는 흥미 깊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原油가격은 표준 케이스로 1990년에는 1배럴당 23달러, 1995년에는 30달러, 2000년에는 37달러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②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石油비중은 1990년에 46%, 2000년이 되어도 42%로 40%를 밑돌지 않는다.

③ 단, 原油가격이 계속 저조할 경우, 非OPEC는 물론이고 OPEC의 석유개발 투자도 둔화되며, 1990년 이전에 OPEC의 원유생산량이 생산능력의 85%를 넘어서 3차 석유위기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④ 原油가격이 배럴당 15달러로 추이한 경우, 1990년에는 美國의 석유수입이 지금의 2배수준인 하루 약 1천만배럴에 달할 것이다.

최근의 소련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앞으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石油가 에너지의 主宗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中東정세는 앞으로의 석유정세를 점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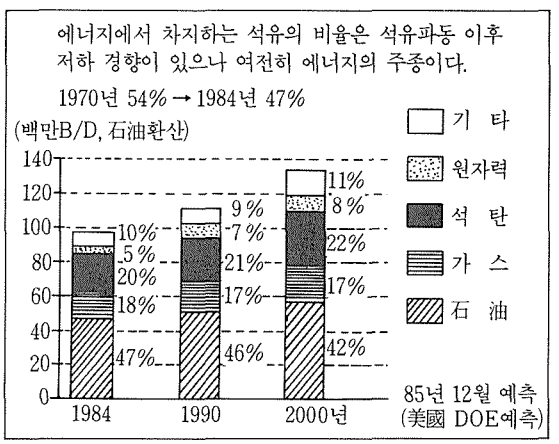
또한, 美國의 베이커 재무장관의 채무국에 대한 추가

〈表-4〉 美의회 조사국의 「석유가격하락이 美國에 미친 영향」 보고서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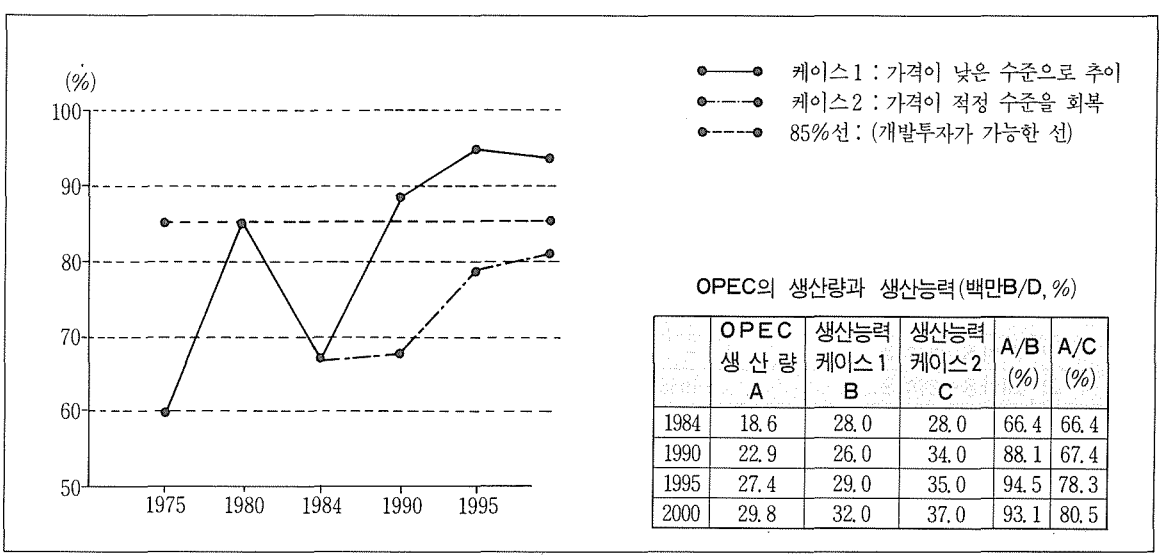
1986년-'90년의 석유가격이 15$/B인 경우, 석유수입은 지금의 2배인 약 1천만 B/D가 되며, 10$/B인 경우의 수입은 1,120-1,430만B/D로 대석유 수입국으로 전락.

(단위 : 백만B/D)	1985년	1990년		
		20$/B	15$/B	10$/B
석유수요	15.7	16.8~17.3	18.6~19.2	19.4~21.2
석유생산	10.6	9.5~ 9.9	8.2~ 9.0	6.9~8.1
석유수입	5.1	6.9~ 7.7	9.0~11.0	11.2~14.3

〈그림-5〉 자유세계의 1차에너지 수요예측



〈그림-6〉 OPEC의 생산능력에 대한 생산량 전망



OPEC의 생산량과 생산능력(백만B/D, %)

	OPEC 생산량 A	생산능력 케이스1 B	생산능력 케이스2 C	A/B (%)	A/C (%)
1984	18.6	28.0	28.0	66.4	66.4
1990	22.9	26.0	34.0	88.1	67.4
1995	27.4	29.0	35.0	94.5	78.3
2000	29.8	32.0	37.0	93.1	80.5

융자안 제안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멕시코 등의 채무국문제, 공산화의 위험등도 심각해지고 있다. 원유가격하락은 경제적으로 잇점이 크다고 모두가 좋아할 문제만은 아닌것 같다.

가까운 장래에 원유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석유개발부문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려온 歐美의 석유회사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석유탐광, 개발을 추진할 것이냐의 질문에는 부정적이 답이다.

이미 생산을 개시하고 있는 유전의 대부분은 가령 채산성이 안맞는다해도 자금회전을 위하여 생산을 계속할 것이며, 만약 이란·이라크 전쟁이 종결되면 더욱 공급과잉이 될 환경도 생각할 수 있다. 석유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석탄이나 가스의 수요에 의해 장래 석유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따라서 歐美 석유회사들은 원유 가격의 저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아 경영전략상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歐美의 주요석유회사는 금년 3월경부터 당초 책정한 1986년 자본지출 계획을 삭감하고 인원정리의 합리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엑슨 등은 美國, 캐나다 이외의 석유부문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약6천명의 인원을 금년 가을까지 삭감할 계획이다. 〈이데미츠 7월호〉

〈表-5〉「베이커」제안의 산유채무국의 구분

	국 명	채무총액(1984년 말.억$)			Interest debt service ratio	원유가격이	
			이중美銀	비 중		20$/B인경우	15$/B인경우
추가융자 대상국	멕 시 코	967	258	27	37	44	51
	베 네 수 엘 라	313	106	34	18	21	25
	나 이 지 리 아	182	13	7	11	16	19
	에 콰 도 르	69	19	28	30	36	41
추가융자 비대상국	인 도 네 시 아	232		0	7	10	11
	알 제 리	?	10	–	11	14	16
	이 집 트	230	9	4	10	13	NA

*Interest debt service ratio —— 차금반제능력을 재는 지표로 수출收入에서 차지하는 지불이자의 비율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20%이상은 위험수준이라고 한다.

〈表-6〉 歐美석유회사의 원유가격하락에 대한 대응책

회 사 명	'86년 당초자본지출 계획의 삭감	조직변경, 인원삭감계획
엑 슨	108억$→80억$ (특히 개발투자는 '85년 대비 20억$ 삭감한 56억$로 축소)	• 86년 가을까지 미국, 캐나다 이외의 국제석유부문(4회사)를 하나의 신회사로 통일한다. • 종업원 146,000명중 40,500명에 대해 희망퇴직, 조기정년 희망자를 모아 1단계로 6,000명, 2단계로 4,000명을 삭감할 예정.
세 브 론	50억$→35억$ (개발투자는 변함없고, 조업비 및 인건비를 삭감)	• 옛「걸프」설비의 불요부문 매각추진 • 신시내티 정유공장(능력 4.4만B/D)의 폐쇄와 그 종업원 200명을 7월에 삭감한다. 수단에서도 일부 철수
아 모 코	50억$→35억$	• 6월에서 1,500명 삭감. 캐나다에서도 185명 삭감
아 르 코	30억$→20억$	–
텍 사 코	28억$→25억$	• 1985년에 이미 22,000명 삭감
펜 즈 오 일	–	• 7,200명의 종업원중 8%(600명) 삭감예정
테 네 코	–	• 18%(400명) 삭감 예정
브리트오일	40%삭감	• 10%(250~300명) 삭감 예정